

고용노동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경남 고성군('18.4~'21.12)
목포 · 영암('18.5~'21.12)

- (사업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 신설 · 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053		8,020 (99.8)	4,746	△3,307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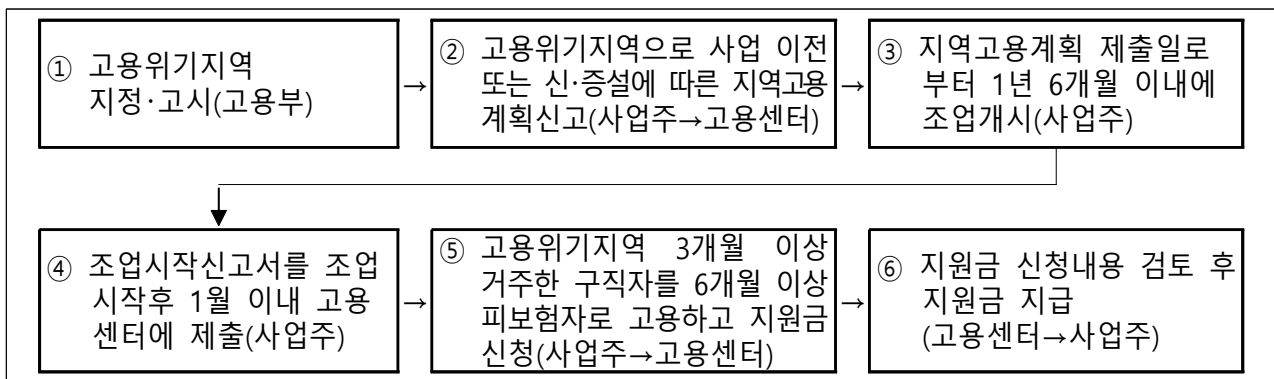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주요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해당없음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842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03%,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0.5%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62.0%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38.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중년(64.4%)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장년(21.0%), 청년 (11.5%), 고령(3.1%)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842 (100.0)	522 (62.0)	320 (38.0)	97 (11.5)	542 (64.4)	177 (21.0)	26 (3.1)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86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03%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0.3%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9.7%)의 참여도가 100.0%로 나타남.
- (산업별) 제조업(52.3%)과 서비스업(47.7%)의 참여 비중이 높음.

〈표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86 (100.0)	86 (100.0)	0 (0.0)	45 (52.3)	0 (0.0)	41 (47.7)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1)	기업생존률2)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67.2	38.1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창출 전체	4.18	4.18	4.18	4.37	4.22	4.16	3.98	4.17	4.26	4.16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4.10	4.06	4.22	4.34	4.14	4.26	4.12	4.24	4.10	4.02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창출: 지원대상(23.4) > 지원수준(13.8) > 지도/관리(10.4) > 지원기간(10.1) > 신청절차(9.7) ; 없음(32.6)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창출: 신청절차(11.5) > 지원기간(5.0) > 지원수준(4.9) > 지원대상(4.4) > 지도/관리(2.4) ; 없음(71.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창출: 4.22점, 추천(80.1=33.9+46.2) > 보통(16.8) > 비추천(3.1=2.2+0.9)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의 신설, 이전, 증설 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제품시장의 급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점 등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군산, 울산(동구), 통영, 거제, 창원(진해구), 고성,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이 7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잠재적 수요는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일자리사업 성과

- 2020년 이 사업의 고용창출 규모는 842명으로서 2019년의 666명에 비해서 26.4% 증가하였고, 예산집행률도 2019년의 81.2%에서 2020년 99.8%로 개선되었음.
-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발생하면서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창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실적 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이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67.2%로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다소 낮으며, 2019년의 71.4%에 비해서도 4.2%p 하락하고 있어서 고용유지율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 사업의 실적이 2020년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7개의 고용위기지역에서 발생한 일자리 위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사업의 지원실적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의 취지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원금 수준이 고용위기지역에서 신규 고용의 창출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한계로 지적

○ 운영의 적정성

-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만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 그동안 사업 기간의 누적과 적극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예산집행률 저조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응해서 예산을 축소한 후 다시 예산의 원상회복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홍보활동의 강화, 지방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예산집행률과 사업실적 등을 높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제도개선 노력

- 지원금 신청횟수를 연 4회로 통일한 점 등 제도개선 노력이 확인되고 있음
- 그렇지만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 확대, 지원금 신청절차의 간소화,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강화, 전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은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음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개선필요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 지원요건 완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이 사업의 신청 절차가 사전계획서 신고에서부터 이 사업의 지원금 수령까지 복잡하다는 현장의 애로가 일부 제기되고 있어 검토 필요
 -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신설이나 이전, 증설 등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등의 변경이 지속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 차원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다른 지역일자리사업들과의 연계성 확보, 고용위기지역의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